

welcron⁺*in*

2013 WINTER Vol.05 웰크론그룹 사보 '웰크론인'



WELCRON

WELCRON

- (주)웰크론
- (주)웰크론강원
- (주)웰크론한텍
- (주)웰크론헬스케어
- (주)웰크론글로벌비나

웰크론글로벌비나(베트남) 공장 전경

도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하라.
실패하라.
그리고 다시 도전하라.
이번에는 더 잘해보라.
넘어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단지 위험을 감수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뿐이다.
이제 여러분 차례이다.
이 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

<오프라 윈프리>

2013 WINTER Vol.05

welcron그룹 사보 'welcron인'



표지 이야기

welcron글로벌비나 해외영업2팀에서
영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모니카(Monica) 사원.
아름다운 미소가 글로벌비나의
화목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듯하다.

발행일 2013년 12월 24일(통권 제5호)
발행인 이영규
발행처 welcron그룹 기획조정실 홍보IR팀(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12)
tel. 02.2107.6742 / fax 02.539.8115
기획·디자인 (주)디자인페이지
tel. 02.324.9422
출력 하우두 그래픽
tel. 02.2268.2304
인쇄 은성D&P
tel. 02.461.0313

contents

Welcron Story

- 04 **Special Theme**
성공하려는 자, 도전과 변화의 무게를 견뎌라
- 06 **Theme Talk**
Bye, 2013! Hi, 2014!
- 08 **Focus 01**
welcron그룹 임원 워크숍 & 입사 2과정 현장 스케치
- 12 **Focus 02**
이영규 회장님이 직접 전하는 혁신과 '도전의 가치'
- 14 **찰칵! 현장 스케치 01**
welcron그룹 2013 야간행군
- 16 **찰칵! 현장 스케치 02**
welcron그룹 2013 관악산 등반대회
- 18 **Zoom in story**
생명을 지키는 welcron의 기술력 '빙탄복'
- 22 **우리는 파트너**
welcron한택과 신승산업 농산공장
- 26 **세계를 가다**
情이 넘치는 welcron글로벌비나 현장 속으로

Welcron People

- 32 **파워인터뷰**
welcron강원 기술부 지바 오미디(Ziba Omidi) 대리
- 34 **welcron인 무한도전**
welcron 해외영업팀 하운형 계장의 패러글라이딩 도전기
- 36 **생생 가족여행**
welcron한택 건설구매팀 오동훈 과장 가족
- 40 **행복을 파는 가게**
세사리빙 인천주안점, 세사 의정부점
- 42 **축하합니다**
welcron그룹 새 여자기숙사 탐방

Welcron Life

- 44 **Health & Trend**
여자에게 참~ 좋은 좌훈의 효능
- 46 **Living & Design**
음이온 침구 세사리빙 '숲이온', 세사 '웰이온'
- 47 **고객 체험수기**
세사리빙 고객 체험수기 당선작

48 **News**

50 **빨간우체통**



멈추지 말고 흘러라 성공하려는 자, 도전과 변화의 무게를 견뎌라

고이면 썩는 건 자연의 섭리만이 아니다. 요즘처럼 고객의 니즈와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그 흐름을 타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놓은 아성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결국 기업의 목표는 고객에 닿아있기 때문이다. 끝없는 도전과 변화만이 기업의 성공은 물론이고 생존 그 자체를 가능하게 한다.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 엘론 머스크의 도전

영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토니 스타크라는 인물에는 실제 모델이 있다. 그는 바로 실리콘 밸리의 스타 CEO인 엘론 머스크. 어릴 적부터 과학과 공학에 관심이 많았던 엘론 머스크는 10살에 처음 컴퓨터를 접한 후 12살에 직접 만든 게임을 5백 달러를 받고 팔았을 정도로 이 분야에 남다른 능력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삶을 영화 같은 성공담으로 만든 것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꿈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가 차린 온라인 콘텐츠 소프트웨어 벤처회사 Zip2를 1999년 컴팩이 3억 7백만 달러에 인수하면서 그는 겨우 28세의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그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인터넷 결제 서비스 페이팔(Paypal)을 만들었다. 그리고 페이팔(Paypal)을 2002년 이베이에 15억 달러로 팔면서, 생뚱맞게도 '우주' 분야에 도전했다. 세계 최초로 우주 택시와 우주 화물 서비스를 수행하는 우주항공회사 스페이스 엑스를 창업한 것. 어찌 보면 황당하게 느껴지는 이 비전은 2010년 첫 로켓 발사, 2012년 무인 우주화물선 '드래곤'의 우주정거장 임무 수행을 성공시키면서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그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태양광 에너지업체인 솔라시티를 세워 청정에너지 분야에 뛰어든 것. 동시에 그는 테슬라 모터스라는 전기자동차 회사를 세워 2008년 세계 최초로 일반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는 고성능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성공시키기도 했다.

무엇이 비야디를 세계 최고의 과학기업으로 만들었나

자그마한 배터리 회사에서 시작해 훗날 전기자동차 회사로까지 성장한 중국기업 비야디는 도전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준다. 워렌 버핏이 2008년 2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 10%를 갖고 있는 비야디는 조실부모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왕촨푸라는 소년의 도전정신으로 세워진 글로벌 기업이다. 한때 가난했던 이 소년을 2009년 중국 최고의 갑부가 되게 한 첫걸음은 27세 젊은 나이에 비커전지 유한회사의 사장으로 초빙되기도 했던 그가 이 안정적인 자리를 박차고 나와 휴대폰 배터리 제조업체로 비야디를 설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 기업이 장악하고 있던 충전지 시장에 과감하게 도전했던 것. 창업 2년 만인 1997년, 이 회사는 매출액 1억 위안 이상을 올리는 중견기업이 되었고 이후 3년간 해마다 10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왕촨푸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00년 니켈수소 전지와 리튬 전지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리튬이온 배터리 35만 개, 니켈수소 배터리 40만 개를 생산해 무려 60% 이상을 수출하는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 게다가 2003년에는 경영진들이 모두 반대하는 자동차 사업에도 뛰어들어 결국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사업영역을 확장시켰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나는 실행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감히 생각하려 한다." 왕촨푸 회장의 이 말 속에는 비야디라는 자그마한 배터리 회사가 어떻게 굴지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



공상과학을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 '엘론 머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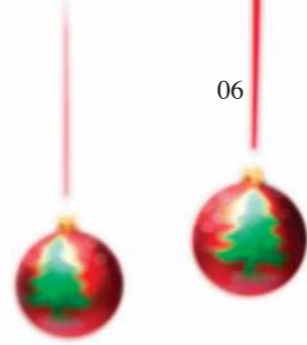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의 선두기업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자동차 및 동력전지 생산업체 비야디 창업자 '왕촨푸' 회장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며 '흘러가라'

남들과는 다른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향한 쉬지 않는 도전 끝에 남들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결과를 이룩하여 훗날 실리콘 밸리의 성공신화가 된 엘론 머스크의 영화 같은 이야기는 꿈과 도전 앞에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다.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라면 안정적인 자리를 벗어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기도 하면서 작은 배터리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비야디의 왕촨푸 회장 이야기는 왜 기업이 중단 없는 도전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준다. 고여 있을 것인가, 아니면 흘러갈 것인가.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이미 지금으로 '흘러온' 기업이라면, 또 다른 흐름만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잘 알 터이니 말이다.



Bye, 2013! Hi, 2014!



웰크론인이 말하는 웰크론의 2013, 2014

1. 2013년 웰크론그룹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2. 2013년의 웰크론그룹에 점수를 매겨본다면?
3. 2014년의 웰크론그룹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4. 웰크론그룹의 성장을 위해 다가오는 2014년엔 어떤 노력을 하시겠어요?
5. 2014년의 웰크론그룹에 대한 기대평

웰크론 대리점상품팀 박지혜 과장

1. 저는 개인적으로 입사 후 두 번째 행군이었던 야간행군이 기억에 남아요. 첫 행군보다 수월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점점 행군을 즐기게 되는 저 자신을 발견하곤 많이 신기했거든요.
2. 5개의 가족사가 서로 연계되어 동반성장하는 루트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좋았어요. 저는 88점 드리겠습니다.
3. 직원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해외연수, 직무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자기개발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대기업보다 더 가고 싶은 회사가 될 수 있겠지요!
4. 개인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언젠가 한 줄기 빛을 발하며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날이 꼭 올테니까요.
5. 모두가 힘들다고 할 때 오히려 성장하는 2013년의 웰크론그룹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큰 노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개인과 그룹이 하나로 뭉쳐 2022 비전 달성으로 가는 기반을 다집니다.

웰크론강원 기술본부 이재진 이사

1. 신체적으로 튼튼해지는 동시에 정신을 재우장시키고, 단결력을 고취시키는 좋은 기회였던 야간행군과 등반대회였죠.
2. 더 노력하지는 취지에서 90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최고다, 우리가 미래다!"라는 웰크론그룹의 구호처럼 5개사가 함께 하는 각종 행사, 동호회, 복지 프로그램 등 직원 간의 소통을 통해 애사심, 자부심,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3. 해외영업 확대시키고, 핵심기술인력 및 신규 기술을 확보하여 외부적으로도 더 큰 회사가 되어야죠. 5개사의 협력과 공유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어야 하겠고요.
4. 신규 기술 확보에 따른 사내교육 활성화를 통해 직원들이 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이익의 극대화 전 임직원이 연말 성과급 대진치를 벌였으면 좋겠네요(웃음). 많은 수주와 매출로 그룹의 외형도 커지고, 외부에서 부러워하고 입사하고 싶은 회사로 알려지는 웰크론그룹을 기대합니다.

웰크론한텍 경영기획본부 정성식 상무

1. 베트남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이역만리에서 짧은 기간 잘 안착했다는 건 우리 임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2. 80점. 꿈은 많지만 아직 공부를 더 해야하는 고등학생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퐁기 전 짬은 어둠이 깔린 상황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곧 동이 터오기를, 웰크론의 약진을 기대합니다.
3. 발전사업, 에너지사업, 방산사업 등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하는 상황에서 도전 목표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냉정함을 잃지 말고, 각 회사의 개성을 잘 살리면서 5개사의 힘을 하나로 모아 같이 고민하고 얘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야지요.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도 있잖아요.
4. 그룹 차원의 회사 간 시너지를 위해 각 회사에 대한, 그리고 각 부서에 대한 배려심을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각 회사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잘 알 수 있도록 알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5. 먼동이 뜨기 전 감감한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잘 보지 못했던 2013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동이 터 서로의 얼굴을 보고 웃을 수 있는 2014년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웰크론헬스케어 마케팅팀 조은혜 주임

1. 지난 10월에 있던 등반대회는 저에게 첫 그룹 등반대회였어요. 등산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살렘 반 걱정 반으로 참여했는데, 다 함께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쁨과 짜릿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2. '우리는 이름 아래 다 같이 하나될 수 있었던 2013년' 저는 100점 만점 드리겠습니다.
3. 지금처럼 나 혼자 아닌 여럿이 함께 한다는 자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세를 가진 회사가 되면, 곧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초일류 기업으로 우뚝 서지 않을까요?
4. 제가 하는 분야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실력을 갖추고 싶어요.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 2014년은 웰크론그룹이 세계적 기업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도약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정리할 것은 정리하며 올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연말이다. 반성이 없으면 도약도 없는 법. 웰크론그룹의 2013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14년의 성장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네 명의 웰크론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각기 다른 그룹사 소속에 각기 다른 직책을 가졌지만 '웰크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이들이 말하는 '2013년의 웰크론그룹과 2014년의 웰크론그룹'에 대해 들어보자.

웰크론그룹 임원 워크숍 & 입사 2과정 현장 스케치

지난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용인에 위치한 기흥 골드웨미리콘도에서
웰크론그룹 임원 워크숍과
입사 2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웰크론 가족사 간 소통을 통해
각 직군별 개선사항 및 웰크론그룹의
미래를 토의하고 시너지효과를
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웰크론인 Old & New의 만남

임원과 신입사원이 함께 무언가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란 사실 상 어려운 일. 하지만 웰크론그룹에서는 임원 워크숍과 입사 2과정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하며 소통과 화합의 장을 열었다. 수석부장을 포함한 임원 62명과 신입사원 44명이 참석한 이번 임원 워크숍 & 입사 2과정 프로그램은 '사업소개 및 인사' 등의 임원 대상 프로그램과 '선배의 이야기' 등의 신입사원 대상 프로그램, 그리고 혁신과 리더십을 주제로 한 각종 강의와 같이 임원과 신입사원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웰크론 가족사 간에 소통을 가능케 한 이번 행사는 각 직군별 개선사항 및 웰크론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토의하고 5개사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임원 워크숍 & 입사 2과정은 사외강사들의 수준 높은 강의가 이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권인아 강사의 '긍정마인드와 행복디자인', 한근태 교수의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김광호 강사의 '영웅 콘서트', 홍순영 원장의 '2014년도 경제전망'이 바로 그것. 이들 사외강사들은 임원들뿐만 아니라 신입사원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진행해나갔다.



한양대학교 교수 권인아 강사의
긍정마인드와 행복디자인



임원과 신입사원 따로 또 같이

소통을 통한 화합의 계기를 가지기 위해 기획된 이번 임원 워크숍 프로그램은 각 회사 대표가 아닌 그룹의 일원으로 문제점을 같이 고민함으로써 개선사항을 도출해내자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4개사의 임원들은 진지한 대화를 통해 웰크론그룹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사외강사의 인상적인 강의를 듣고 리더십 역량을 강화시키는 한편, 소통을 통한 인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업무 신속성 및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입사 2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입사원들은 각 취지에 맞게 준비된 교육 프로그램에 충실히 참여하였다. 이들은 강의를 들을 때는 마치 학생으로 돌아가기라도 한 듯 열심히 메모를 하는 등 숙연하고 진지한 분위기로 집중했고, 참여가 필요한 프로그램에서는 적극적으로 열성적인 모습을 보였다.

신입사원들은 강의가 끝난 후 강의 내용에 대한 쪽지시험을 보기도 했는데, 결과를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말에 잔뜩 긴장한 얼굴들이었지만 이를 지켜보는 임원들은 자신들의 사회 초년생 시절을 추억하는 것인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었다.



웰크론헬스케어

박호현 상무

이번 워크숍은 변화의 방향성과 마음가짐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결단력과 신념을 가지게 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김광호 원장님의 “결단할 때 하늘이 움직인다”는 말에 감명 받았습니다.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처럼, 최선을 다했을 때 하늘이 같이 움직일 것입니다. 모든 일은 실천하지 않았을 때 실패합니다. 관념에서 벗어나 결단하고 연구하여 최선을 다하는 웰크론인이 됩시다!

이영규 회장의 강연과 직군별 토의로 마무리

마지막 날에는 이영규 회장의 강연도 있었다. 이영규 회장은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키며 강연을 시작하여 내년 경제전망과 함께 내수경제와 관련하여 웰크론 임직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을 지적했다. 또한 사이먼 사이넥이 저술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을 소개하며 일을 할 때 “왜?”라는 질문의 답을 먼저 생각할 것과 “왜?”의 답과 신념을 가지고 액션을 취할 것을 강조했다.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위해 일하는 신입사원이, 그리고 직원들에게 영감을 주어 직원들이 잘 따르게 하는 훌륭한 임원이 될 것을 역설한 이영규 회장의 강연은 앞선 사외강사들의 강의 못지않은 훌륭한 명강의였다.

이어 진행된 직군별 토의 발표 시간은 임원 워크숍과 입사 2과정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프로그램이었던 만큼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었다. 신입사원이 발표하고 이영규 회장이 직접 코멘트해주었다는 점에서 직급을 뛰어넘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 1. 콤비마케팅 연구원 김광호 원장의 ‘영웅 콘서트’
- 2. 경기개발연구원 홍순영 원장의 ‘2014년도 경제전망’
- 3.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한근태 교수의 ‘조직커뮤니케이션 소통’

웰크론 해외영업팀

허원영 사원

3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느꼈던 현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짚어보고 임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평소 어려웠던 임원분들과 거리를 좁히고 가까워진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긍정마인드와 행복 디자인’ 강의를 통해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겨내는 웰크론인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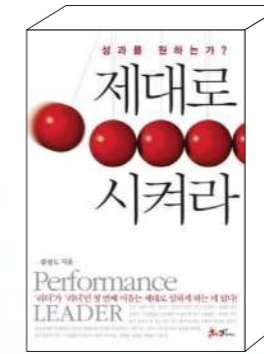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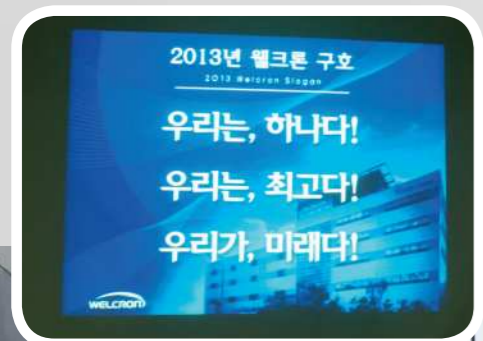


이영규 회장이 직접 전하는 **‘혁신’과 ‘도전’의 가치**

혁신 도서 강연, 혁신과 도전의 가치를 전하다

매월 진행되는 웰크론 월례조회에서 이영규 회장은 몸소 ‘혁신’과 ‘도전’의 가치를 전파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그가 가치 전파 도구로 삼은 것은 다름 아닌 ‘책’. 두 가지 가치를 담고 현장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담은 도서를 소개하고 혁신 마인드를 전파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지난 12월 2일 본사 지하식당에서 열린 웰크론 월례조회에서도 어김없이 이영규 회장의 혁신 도서 강연이 진행되었다. 12월의 혁신 도서로 선정된 책은 경영컨설턴트 류랑도가 저술한 <제대로 시켜라>. 이영규 회장은 이 책을 소개하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리더와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적인 구성원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다.



류랑도, 「제대로 시켜라」, 쌤앤파커스(2011)

제대로 성과 내려면? 제대로 시켜라!

<제대로 시켜라>는 리더로서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한 실천적 지침을 제시한 책이다. 제대로 된 성과를 내려면, 구태의연하게 막연한 지시를 내려 수동적으로 일을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시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일을 제대로 시키는 법. 그 첫 번째는 바로 성과목표 올바르게 부여하기. 부서의 전략 과제를 구성원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 그 실행에 있어 역할분담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이때에 일반적인 나눠주기 식의 성과목표 부여나 충분한 논의 없는 상명하달식의 목표 설정은 의미가 없으며, 성과물을 미리 파악하고 구성원에게 실행전략을 먼저 고민하게 하여 일의 목적과 추진 배경, 기대효과 등에 대한 전략적 코칭을 수행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임이 강조됐다. 그리고 성과목표를 부여하고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자원을 지원하는 것 역시 좋은 리더가 할 일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전략 행동은 탁상공론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과감히, 때로는 혁신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때 “김 과장이 오 과장보다 잘했고, 오 과장은 최 대리보다 못했고…….”하는 상대평가는 개개인의 자신감과 의욕을 떨어뜨리고 부서를 와해시키는 위험행위이므로, 구성원들을 서로 비교시킬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록을 얼마나 경신하면서 목표에 도달해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웰크론인이 되기를

이렇듯 이영규 회장은 적절한 사례와 예시를 들며 잘하는 리더, 잘 못하는 리더를 설명하고 좋은 리더가 되는 방법을 전달했다. 또한 ‘대중주의’를 가장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발전없는 임직원들에 대한 따끔한 일침도 아끼지 않았다. 사람 중심의 자율경영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거의 습관을 벗어나 과감히 혁신하는 리더와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창의적인 구성원이 될 것을 촉구하고, 2014년에는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해내는 혁신적인 웰크론인이 되라는 덕담도 잊지 않았다. 팀장급 이상의 구성원들에게는 그동안 혁신 도서로 선정되었던 <일등에는 신념이 있다>, <승자의 안목>, <창조력 주식회사>처럼 <제대로 시켜라>도 모두 읽으라는 미션이 부여되었으며, 각 부서별 구호를 힘차게 외치는 것으로 12월 월례조회는 마무리되었다. 앞으로도 이영규 회장은 독서경영을 통한 혁신활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Welcron그룹 2013 야간행군

가을바람과 함께 결속력을 다지다



슬슬 가을의 기운이 가지개를 켜기 시작하는 초가을의 문턱에서 웰크론그룹은 2013년도 야간 행군을 진행했다. 이번 야간행군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진력을 재무장시키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도전정신을 높여줌으로써 팀워크와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개최되었다.

자신감과 단결력을 강화시키는 야간행군

지난 8월 30일 개최된 2013년도 웰크론그룹 야간행군. 구로동 본사에서 양화대교를 거쳐 다시 본사로 복귀하는 왕복 30.4km 코스의 이번 야간행군에는 웰크론 147명, 강원 83명, 한텍 107명, 헬스케어 3명으로 총 368명의 웰크론인이 참가했다. 체육대회 행사에서 지급된 반팔 티셔츠를 단체복으로 갖춰 입고 행군에 나선 웰크론인들은 먼 길을 걸을 생각에 걱정이 앞서는 마음이 반, 4개사가 다 함께 참여하는 행사라 부풀어 오른 마음이 반인 표정으로 본사에서 출발했다. 빵과 음료수를 간식으로 지급받은 후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2열로 서서 철산교를 향해 걸음을 옮긴 웰크론인들. 철산교에 집합하여 사장님의 훈시를 듣고 준비운동까지 마친 후 다시 고척교, 오금교까지 행군을 진행했다. 야간행군이 진행될수록 지쳐가는 표정이 역력한 웰크론인이 하나둘 늘었지만, 반환점인 양평교를 향해 가면서는 서로 파이팅을 외치며 힘을 내보기도 했다.

우리는 하나! 최고! 미래!

드디어 반환점인 양평교에 도착한 웰크론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야참으로 준비된 전투식량. 뜨거운 물을 부어 건조된 쌀을 익혀먹는 전투식량은 비록 맛갈 나는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약 세 시간에 걸친 행군에 지친 웰크론인들에게는 산해진미와도 같았다. 전투식량과 함께 준비된 피로회복제까지 단숨에 들이켜고 나니, 언제 지쳤었냐는 듯 힘이 불끈불끈 솟은 웰크론인들. 본사로 복귀하는 길에는 양평교까지 행군했던 것보다 한층 더 즐겁고, 씩씩하게 걸을 수 있었다. 4개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주며 목표를 향해 걸어 나갔던 웰크론그룹 2013 야간행군. 이날처럼 서로 한데 뭉쳐 앞으로 앞으로 성장해나가는 웰크론그룹이 되길 기대해본다.

go, go! welcron group

Mini Interview



Welcron 전략기획실 방산사업팀 김경남 이사

현역 시절 매년 200km 이상씩 행군을 했었는데, 사회에 진출해서도 행군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타사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행사를 우리 회사에서 실시한다는 데에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회사 임직원 모두의 체력과 단결심을 배양하고 강한 의지로 생산성과 매출을 증대시켜 2022년 2조 매출 달성의 신화를 반드시 이룩하리라 자신합니다.



Welcron한텍 플랜트사업부 영업지원팀 김태림 사원

면접 당시, 야간행군에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른 기대감으로 행군을 시작하였고 강가를 물들이던 노을과 같은 붉은 의지로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힘이 들 때마다 동료들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힘을 나누어 마침내 목표지점에 도착하였을 때는 희열과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칫 해이해질 수 있었던 정신 상태를 바로잡고 웰크론그룹을 묶은 튼튼한 끈을 다시 한 번 재장비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을 향해! 최고를 향해!

웰크론그룹 2013 관악산 등반대회

알록달록한 가을 단풍이 절정에 다다를 무렵, 웰크론그룹은 올해도 어김없이 산행길에 올랐다. 올 겨울 추위를 예고하는 듯 코골을 스치는 바람이 제법 시렸지만 10월의 가을 날씨답게 하늘은 높고 청명했다.

정상을 향해가는 웰크론인을 관악산이 맞아준다

지난 10월 25일, 웰크론그룹 4개사 임직원들은 관악산 등반에 나섰다. 2011년 도봉산, 2012년 수리산 등반에 이어 9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산행은 6.6km, 총 5시간 코스의 관악산이다. 웰크론그룹 임직원의 조직력과 체력을 키우자는 취지의 이번 등반대회에는 웰크론 119명, 강원 103명, 한텍 9명, 헬스케어 30명 총 343명이 참여했다. 가파른 코스에 들어서면서 3명의 낙오자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큰 사고 없이 대부분의 직원이 목표지점인 연주대까지 등반에 성공했다.

이날은 오전 8시에 과천시민회관 앞에 집결해 간단히 인원점검 및 준비운동을 끝내고 9시부터 산행 길에 올랐다. 그동안 운동량이 부족했는지 초반부터 이어지는 가파른 코스에서는 숨 가쁜 호흡이 이어졌지만, 높아질수록 화려하게 물들어 가는 절경이 우리 직원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었다. 산길을 오르는 도중에는 힘들어하는 직원이 있으면 옆의 동료가 부축해주고 배낭도 들어주는 훈훈한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정상에서 맛본 자신감

드디어 목표지점인 연주대에 도착. 오르고 보니 그동안 웰크론그룹이 실시했던 산행대회에 비해 수월한 코스인 듯하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상에 도착해 아픈 다리를 연신 주물러대며 다시 내려갈 생각에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는데, 이 날은 앞다투어 연주대에 올라 동료들과 기념사진을 찍어대는 모습이 철부지 아이들처럼 개구지다.

한 숨 돌린 임직원들은 연주대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하산길에 올랐다. 최종 장소인 서울대입구에 도착해 허기를 채워줄 도시락을 먹고 이영규 회장이 총평을 한 후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해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해산하는 직원들의 얼굴은 오랜만에 맑은 공기를 맘껏 들이켜서인지 밝고 싱그러웠다.



웰크론 방산사업팀

생명을 지키는 웰크론의 기술력

방탄복은 군인이나 경찰에게 꼭 필요한 물자다. 총알을 막아주는 방탄복은 전투에 참가하는 귀중한 생명을 지켜주고 부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에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며 활동성이 좋은 방탄복이 진짜 좋은 방탄복이라 할 수 있다. 여기, '좋은 방탄복'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웰크론 방산사업팀. 이들의 피땀어린 연구와 노력 끝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지켜지고 있다.



추교진 계장

김정남 이사

이창환 전무

홍호범 대리

소재 개발 전쟁 속에서 뒤지지 않는 웰크론의 슈퍼섬유

2011년 방산TFT팀으로 시작한 방산사업팀은 이창환 전무를 필두로 김정남 이사, 홍호범 대리, 추교진 계장 총 네 명으로 구성된 소수정예의 팀이다. 이들이 '웰크론'이라는 이름 아래 만들어내고 있는 방탄복은 조금 특별하다. 웰크론에서는 나노섬유를 이용해 고강력 부직포를 초박막 형태로 만들고, 이 부직포를 여러겹 쌓아 방탄성능을 향상시킨 고강력 방탄복을 독자 개발하고 있다. 나노섬유 소재를 적용해 탄의 회전속도를 감소시킨 것은 물론, 기존 방탄소재와 동일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무게를 10% 이상 줄이고 유연성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방탄직물은 두께가 5mm에서 10mm밖에 되지 않으면서도 섬유 사이사이에 생겨난 틈새를 최소화하여 탄환에 대한 저항력을 극대화시켜 튼튼하게 제작된다. 이러한 제작방식에 사용되는 방탄소재 역시 예사롭지 않다. 기존 방탄복에 사용되던 폴리에틸렌(PE) 소재 대신 아라미드계 슈퍼섬유인 듀폰사의 케블라(Kevlar)와 DSM사의 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UHMWPE) 두 가지 원단을 사용하는 것. 아라미드 섬유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원사로 2톤 무게의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며 강철보다 10배 높은 인장강도를 지니고 있어 방탄 및 방호용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섬유다. 이런 원사를 다르게 사용하면 민수용 방탄복과 군용 방탄복으로 용도를 분리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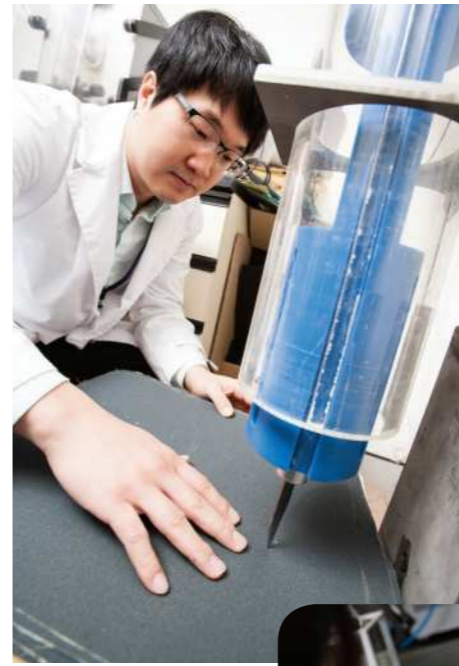
탄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기술력

사실 방산시장에 나와 있는 방탄복의 유형은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 중 '좋은 방탄복'으로 꼽힐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가벼운 제품. 소재의 부드러움(Flexible)에 따라 착용감이 달라지므로 최근에는 착용감이 우수한 소재가 선호되고 있는데, 웰크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지는 방탄복은 가히 '좋은 방탄복'이라 불릴 만하다. 타사에서는 주로 원단을 수입하여 업체에서 제시하는 방탄성능에 맞추어 적층을 하지만, 웰크론에서는 원면을 수입하여 원사를 직접 생산하므로 다양한 밀도로 원단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 이렇게 제조된 원단을 활용하여 여러번의 방탄 테스트를 거친 후 웰크론만의 방탄성능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

인고의 끝에 단 열매를 수확하는 중

이렇게 독자적인 기술을 가진 방산사업팀의 방탄복, 방검복 개발 과정이 마냥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자체 보유설비가 부족해 테스트 및 제품 판매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 그러나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뛰어난 기술력의 개발에 대한 열망을 저버리지는 않은 방산사업팀이었다. 이들은 외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외 인증기관에서 방탄 테스트를 실시하고 설비를 자체 제작하여 방검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어려웠던 부분들을 해소해가며 최고의 방탄복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네파'에 방검복을 납품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대한민국 해군에 부력방탄복, 콜롬비아 공군에 방탄판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양경찰청을 수요처로 구매조건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입찰 및 해외 유엔마켓플레이스(UNGM) 입찰건에도 상시 투찰하고 있으며, 향후 포탄 작업장용과 특수경호, 경찰특공대 등 국내 소규모 특수 방탄복 시장을 개척할 예정 중이다. 방검복의 경우에는 경찰청, 공항공사, 일반 경호업체로 그 수요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품 생산에 있어 맞닥뜨린 어려운 순간들을 잘 견뎌내고 주어진 과제들을 잘 수행해왔기에, 지금과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고에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계속되는 노력

방산사업팀은 현재의 기술력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가볍고 더욱 성능이 우수한 방탄복 및 방검복 성능 개발에 가장 큰 업무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제작한 제품들을 판매하기 위해 국내외 바이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바이어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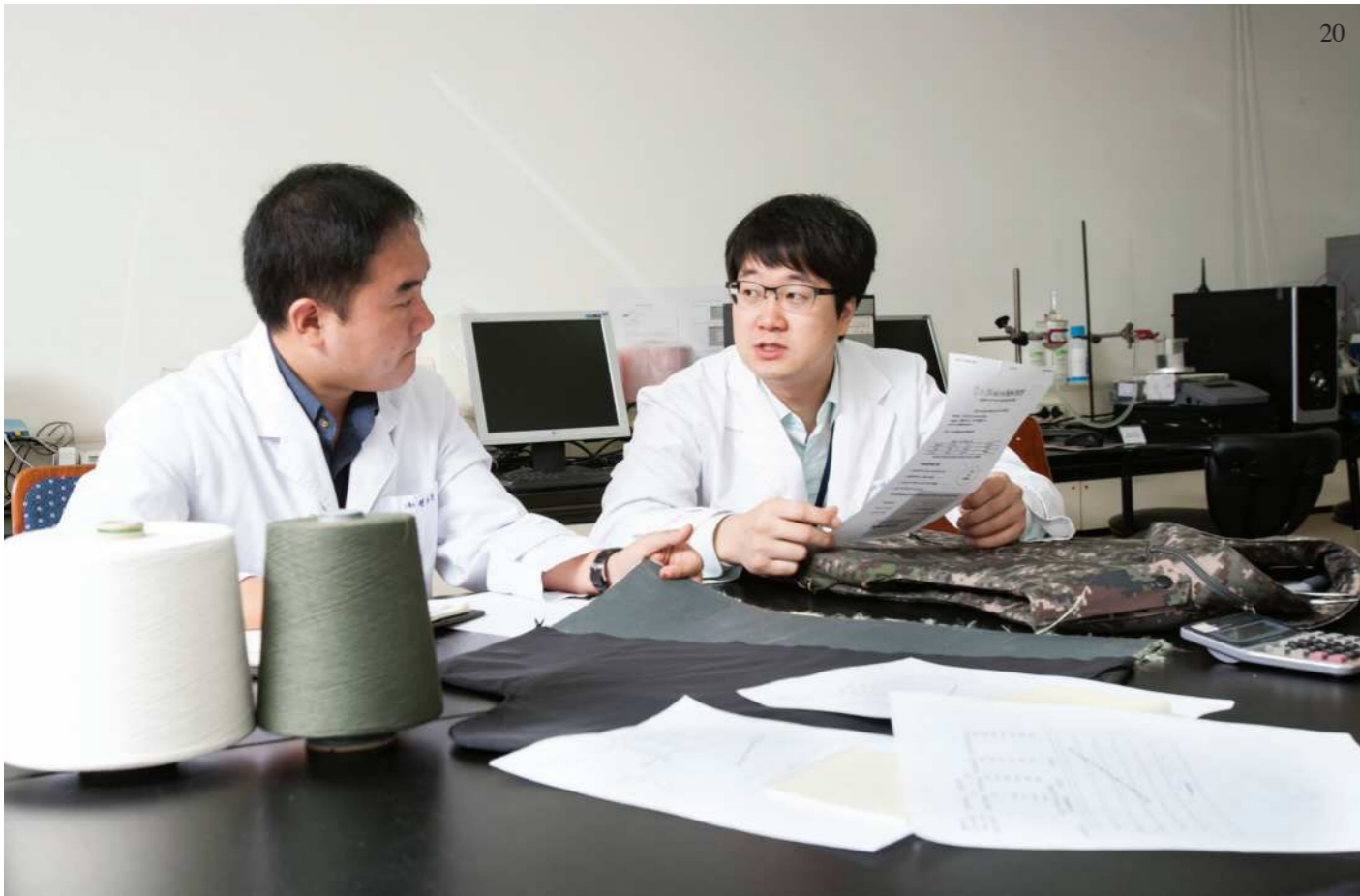
방탄복, 방검복을 입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국내 최고의, 아니 세계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방산사업팀. 개발 및 판매를 모두 팀 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하루 하루를 항상 바쁘게 보내게 되지만, "생명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그들의 슬로건처럼 우리의 기술력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각종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생명을 지키는 기술력의 보고임은 물론 웰크론 그룹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도약시킬 발판이 될 웰크론 방산사업팀의 미래가 밝다.

interview

웰크론 방산사업팀
김정남 이사



웰크론이 방산사업을 하는 이유는 방산물자 조달을 시작으로 좀 더 하이테크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웰크론그룹의 매출을 올리는 것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를 신장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주요 산업이 될 방산사업! 아직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기본 마케팅의 기반을 다지는 단계이지만, 신제품과 신소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좋은 방탄복'의 새 기준이 되다

웰크론의 방탄복은 기존 제품 대비 10%가량 가벼우면서도 성능은 20%가량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세계 1, 2차 대전과 한국전, 걸프전 등 전쟁지역의 군인 사망원인 1위인 파편탄에 대한 방호성능은 기존 제품 대비 20% 이상 향상시켰으며, 목과 옆구리 부위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탈착이 가능한 낭심 보호대도 채용했다. 무게를 몸통으로 분산시켜 착용감과 통풍성을 개선시키기도 했다. 고강력 부직포를 초박막 형태로 적층시킨 방탄직물로 만든 방탄복이기에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어 활동하기에 편한 것은 물론이다. 개선된 착용감과 활동성은 우수한 제품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 주었다. 또한 웰크론에서 생산되는 방탄복은 미국의 관통성능 기준도 만족시키는 등 해외 시장에서 이미 그 우수성을 입증 받은 상태이다.

기본 방탄성능 외 각종 부가기능도

방산사업팀에서는 방탄복의 기본이 되는 방탄성능을 넘어서 방탄복 종류에 따른 각종 부가기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힘썼다. 부력성능을 향상시킨 부력방탄복이 그 대표적인 예. 기존 부력방탄복은 그 무게와 압력에 약한 속성 때문에 부력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웰크론 방산사업팀에서 폴리에틸렌 부력재와 특수소재를 복합화해 내열성과 내구성, 부력성능을 극대화시킨 신소재 부력재를 독자 개발하여 비상사 전투원들의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최근에는 정부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해양용 방검복 개발에 나서고 있으니, 양날검은 물론 한날검이나 송곳까지도 막아낼 수 있는 웰크론 방검복을 통해 해양경찰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날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웰크론한텍과 신송산업 논산공장

웰크론한텍과 신송산업의 윈윈 효과

웰크론한텍의 기술력이 밀가루와 만났다? 에너지 플랜트 전문기업 웰크론한텍이 밀 전분 제조업체 신송산업과 만나 윈윈(Win-Win) 효과를 거두었다면, 얼핏 들어서는 고개를 가우뚱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신송산업 논산공장은 웰크론한텍의 플랜트 기술력이 집약된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유일 밀 전분·글루텐 제조업체 신송산업

신송산업은 국내 식품업계가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밀가루 전분 및 활성 글루텐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이다. 신송산업에서 생산되는 소맥 전분, 타피오카 전분, 활성 글루텐, 아미노산은 면류, 제과제빵을 비롯한 식품류에는 물론이고 의약품, 섬유공업, 제지공업 등의 산업용으로도 널리 이용되는 원료이니, 이를 제조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력이 국내에서는 신송산업에게만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다. 여기서 신송산업의 전분 건조기 1호 라인을 제외한 모든 설비 시설이 하나하나 다 웰크론한텍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 역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송산업 혐기성 소화조를 보고있는 웰크론한텍의 김서빈 사원과 정대원 상무

신송산업의 오랜 고민, '수(水)글루텐'과 폐수처리

신송산업과 웰크론한텍의 인연은 벌써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때는 2000년대 초반. 당시 신송산업의 최대 고민은 건조처리만 하면 전분보다 3~4배 이상 값을 받을 수 있는 '수(水)글루텐'을 기술 미흡의 이유로 전량 폐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폐기 과정에서 고농도 유기성 폐수가 매일 2,000톤 이상 대량 발생하면서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것.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폐수도 늘어나니 수익성은 더욱 악화된다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었다. 이때, 웰크론한텍의 기술력이 마법 같은 기적을 만들어냈다.

웰크론한텍의 놀라운 기술력이 해결사가 되다

먼저, 웰크론한텍은 첨단 건조기의 개발에 성공했다. 첨단 건조기는 60%의 수분을 함유한 '수(水)글루텐'을 공기로 빠르게 이동시켜 수분 6%의 글루텐 파우더로 만드는 장치. 이를 통해 글루텐의 국내생산에 성공하면서, 신송산업은 국내 유일의 밀가루 글루텐 파우더 생산업체로 등극할 수 있었다.

폐수처리 문제는 웰크론한텍이 설치한 혐기성 소화조가 해결해주었다. 미생물 분해방식으로 전력 사용량과 슬러지 발생량을 최소화한 것이다. 호기성 소화조와 달리 혐기성 소화조는 타워형으로 구축할 수 있기에 부지 매입 비용도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시킬 수 있었다. 여기에 폐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는 스팀 생산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미생물의 증식이 활발해 미생물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상당하니, 일석이조, 아니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둔 것이라 하겠다.

손을 맞잡은 두 회사의 윈윈(Win-Win) 효과



신송산업에 상주하며 폐수처리설비를 총괄한 웰크론한텍 정대원 상무

현재 신송산업에서는 총 3기의 첨단 건조기가 완공되면서 하루 30여 톤의 글루텐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가량은 일본 과자 전문 업체 글리코(Glico)로 수출한다. 혐기성 소화조에서 나오는 미생물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한해 1억 5,000만 원에 달하고, 다량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공장 내 에너지의 70~80%를 충당하니 월 1억 8,000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5년 전 2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신송산업의 매출은 웰크론한텍과 손을 잡은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매출은 597억 원을 달성하며 점차 성장해가고 있다.

이렇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돈독한 관계가 되다 보니, 웰크론한텍은 지난해 11월 34억 원 규모의 신송산업 공장 증축 프로젝트를 맡으며 플랜트 설비와 종합건설을 일괄 수행하는 플랜트 전문 EPC(설계, 구매, 시공 등을 포함한 일괄공사)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다. 특히 웰크론한텍이 톡톡히 덕을 본 것은 바로 입소문. 웰크론한텍과 손을 잡은 신송산업의 폐수처리 문제 해결 방안이 입소문을 타면서, 마찬가지로의 골머리를 앓는 다른 식품 기업들도 폐수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신공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입소문을 타고 밀려든 설치 문의에, 웰크론한텍은 롯데칠성 오폐수공장, 롯데삼강 천안공장, 하이트맥주 전주공장, 삼양제넥스 울산공장 등에 혐기성 소화조 방식의 폐수처리시설을 더 설치하였다.



생산된 활성 글루텐

10여 년이 계속된 신송산업과 웰크론한텍의 인연은 신송산업에게는 국내 유일 밀 전분 및 글루텐 제조업체로 승격하고 월 1억 8,0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웰크론한텍에게는 플랜트 전문 EPC 기업으로써 업계에 입소문이 자자해진 혐기성 소화조를 다수의 공장에 더 설치할 수 있게 된 기회를 가져왔다. 앞으로도 두 기업의 계속되는 성장과 발전을 기대한다.

情이 넘치는 웰크론 글로벌 비나 현장 속으로

11월 말 베트남의 공기는 생각보다 따뜻했다. 찌는 듯한 더위에 습한 날씨를 예상했지만 우기(雨季)가 지난 베트남의 11월 날씨는 우리의 초여름과 비슷했다. 호치민 공항부터 이날의 목적지인 '웰크론글로벌비나'가 위치해 있는 롱탄공단까지의 한 시간 남짓 동안 새로운 신혼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서울 도심 못지않게 변화한 호치민 거리와 바쁘게 오가는 시민들, 또 베트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빼곡한 오토바이 행렬과 그것을 피해 곡예운전을 하는 자동차들이 다소 요란하지만 활기가 넘치는 그들의 일상을 집약시켜 놓은 듯했다.



웰크론그룹의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 웰크론글로벌비나

베트남 호치민시 동나이성의 롱탄공단에 위치한 웰크론글로벌비나. 웰크론그룹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장고 끝에 지난해 10월 설립한 첫 해외법인이다. 롱탄공단은 KCC, 파나소닉, 서흥캡셀, 대명화학 등 굵직한 대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떠오르는 산업단지다. 지난해 9월 글로벌비나는 이 곳 롱탄에 대만 조명업체가 운영 중이던 4만 2천 m² (12,705평) 규모의 공장을 인수했다. 현재 연간 2,400만 장의 극세사 클리너와 10만 채의 침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200여 명의 베트남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한 마디로 '프렌들리(friendly)', 즉 친근함이다. 이미 베트남 모든 가정에 한국 제품이 있다. 한국 기업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성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에는 1,40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총 230억 불을 투자, 미국·중국·일본 기업보다 활발한 기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단,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고민거리가 하나 있다면 '노사문제'다. 지난 한 해 20여 곳의 기업에서 1만 5천여 명이 파업을 진행했다. 대부분의 문제는 '복지' 때문이었지만 더 큰 이유는 '문화적 차이' 때문이었다. 웰크론글로벌비나의 앨버트 조 사장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직원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문화적 간격을 좁히고 '정(情)으로 소통하는 기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情)으로 소통하는 기업... 사장님은 '산타클로스'

관리자와 일반 직원 간의 수직적이고 딱딱한 분위기는 보통 베트남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런 문화에 익숙해 있던 베트남 근로자들이 사장과 이렇게 마주보고 웃을 수 있게 되기까지 조 사장의 노력이 특별했다.

조 사장은 매일 하루 두 번 직원들과 소통한다. 첫 번째 만남은 점심식사 시작 전, 점심 시작 벨이 울리면 식당 옆 개수대에는 조 사장이 어김없이 서있다. 아직 위생관념이 잡혀 있지 않은 베트남 직원들에게 식전에 작업으로 더러워진 손을 씻는 습관을 들여주고 있는 것. 우르르 몰려나온 직원들은 개수대 앞에 붙어있는 '손 씻는 방법'을 참고해 열심히 손을 씻는다. 그리고는 조 사장 앞으로 달려와 깨끗해진 손을 앞뒤로 연신 뒤집어 보인다. '합격!' 판정을 받은 직원들은 기쁜 마음에 조 사장과 신나게 '하이파이브'까지 한 후 식당으로 뛰어들어간다.



두 번째 만남은 오후 2시경에 이루어진다. 배도 부르고 몸도 노곤노곤 해지면서 눈꺼풀이 무거워질 무렵, 조 사장은 편직동, 봉제동, 침구동 이 세 공장을 직접 돌아본다. 힘들어하는 직원의 뒤로 다가가 어깨축지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졸려 하는 직원에게는 사랑 한 응큼을 건네기도 한다. 기계를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깜빡 조는 사이에 상처라도 입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 조 사장은 '산타클로스'로 불린다고.



10개월째 편직동에 근무하고 있는 론(Loan, 20)입니다. 가끔 기계가 고장날 때면 힘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국 회사보다 편안하고 모든 분들이 잘해주셔서 회사가 즐겁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아져 한국 영화도 자주 보게 됐어요.

침구동 꿰틀기계를 담당하고 있는 지양(Giang, 32)입니다. 한국 회사는 두 번째로, 이곳 침구동이 설립될 때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친절하신 한국 직원들과 함께 오래오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Tip. 웰크론글로벌비나 엘버트 조 사장

- Q. 웰크론글로벌비나의 설립 계기는?**
A.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해 베트남에 진출하였으며, 그룹 주력 상품인 극세사 제품 및 기능성 침구의 해외 생산과 더불어 가족사인 웰크론강원, 웰크론한텍, 웰크론헬스케어의 글로벌 전초기지로써 세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 Q.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A. 현지인들과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생기는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야 하는 점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 Q. 창립 1년이 지났는데 어떤 점에서 보람을 느끼시는지?**
A. 노사 사이에 작은 소통의 공간이 형성되고 있고, 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씩 서로 통합되고 있다고 느껴질 때 보람을 느낍니다.
- Q. 향후 베트남 시장의 가능성을 평가하신다면?**
A. 베트남은 다른 주변 국가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제조업의 생산거점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주력 소비층이 확대됨에 따라 내수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 Q. 2014년 목표와 5년 후 글로벌비나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A. 글로벌비나는 2014년 자생적 흑자전환을 달성할 것입니다. 5년 후에는 글로벌 웰크론의 선두주자로서 세계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 Q.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현지 직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렴합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꼭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웰크론글로벌비나 파이팅입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깨끗하고
누구나 자기 분야에 열심인 특별한 공장

글로벌비나는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10만 명 기업인들 사이에서 '깨끗한 기업'으로 평명이 나왔다. 흔히 공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게다가 베트남 공장이라 해서 어느 정도 너저분한 분위기를 예상했으나 공장 곳곳을 둘러봐도 휴지 한 조각 떨어져 있지 않다. '깔끔' 그 자체다. 지저분한 환경에 익숙해진 현지 근로자들의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였다. 글로벌비나는 특별한 상도 만들었다. 요즘 TV에서 한참 유행하고 있는 '진짜사나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일반 직원 이외에 특수직 사람들에게 '1등상'을 주는 것이다. 자기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상은 얼마 전 화단을 가꾸는 '꽃 할아버지'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나이 많은 직원이 전 직원 앞에서 떨리는 두 손으로 상장을 수여받을 때에는 분위기마저 숙연해졌다. 이 후 모든 직원들이 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Tip.

APEC 본부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본부는 베트남 주요 기업 활동의 중심지인 호치민 시 1군에 자리 잡고 있다. 마르타임은행 본사 9층에 위치한 APEC 본부는 웰크론그룹 57개사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APEC 본부는 3M의 오더 수행 및 침구 생산 관리, 클리너와 침구의 신규 시장 개척을 이끌어왔으며, 최근 웰크론한텍과 웰크론강원, 웰크론헬스케어에 대한 업무지원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다. APEC 본부는 웰크론그룹의 해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준비작업을 마쳤다. 글로벌비나를 통해 열병합발전소와 수처리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시공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업종 추구를 완료했다. 현재 펄스콜라 베트남 법인에 음료 설비를 납품하고 있는 웰크론한텍은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발전설비, 하노이의 호수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웰크론강원도 베트남 현지 보일러 업체와 제휴를 맺고 중소형 산업용 보일러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베트남에는 석화학설비를 비롯한 플랜트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 지고 있어 웰크론강원의 에너지 사업 진출에 대한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또한 APEC 본부는 베트남 내 각종 전시회에 활발하게 참가해 웰크론그룹의 브랜드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웰크론헬스케어는 조만간 베트남 GS홈쇼핑을 통해 생리대 제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직원·설비 쑥쑥... 현지 한국인 직원들 노고도 많아

최근 베트남 공장에는 내년부터 부쩍 늘어날 오더에 대비해 최신 설비들이 속속들이 구비되고 있다. 편직동에는 환편기, 경편기, 정경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침구동에는 원헤드 켈팅기에 이어 멀티헤드 켈팅기까지 도입해 차림이불과 함께 여름이불, 패드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시간당 15야드까지 생산해낼 수 있는 멀티헤드 켈팅기 덕분에 생산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시설과 직원들 때문에 베트남에 파견된 한국 직원들의 생활이 녹록치만은 않다. 소수의 인원이 대다수의 현지 근로자를 관리하다 보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일일이 챙겨야 할 때가 많다. 또 가족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고 싶은 순간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 현지 회계 및 총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성호 차장은 "가족의 품이 많이 그리고, 기숙사 생활로 24시간 공장 안에만 있다 보니 출퇴근이 개념이 없어진 것이 아쉬워요. 현지 직원들과 어울려 운동을 하거나 주말에 시내 구경을 나가고, 저녁 시간에 기숙사 방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베트남 법인의 매출이 올라갈 때는 물론, 정성을 쏟은 공장 시설물이 정상 궤도에 오른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김성호 차장은 "내년에는 우리 글로벌비나 식구들 모두 아픈 직원 없이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내년 소망을 밝혔다.

글로벌 시장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글로벌비나

글로벌비나는 극세사 클리너와 기능성 침구 제품으로 기반을 다지고 내년부터 정상적인 영업·생산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독자적인 회사로서 독립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베트남 내수까지 영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또한 첨단 방탄복, 웰크론헬스케어 위생용품의 생산기지이자 해외 판매법인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향후에는 웰크론한텍의 주력 사업인 식음료 설비, 에너지 절감 설비, 해수담수화 설비를 비롯해 웰크론강원의 산업용 보일러 등의 해외시장 개척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지속되는 성장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길을
착실히 걸어가고 있는 웰크론그룹.
웰크론그룹이 세계로 뻗어나감과 동시에,
세계가 웰크론그룹 안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여기, 자신의 꿈을 펼치고 동시에
웰크론그룹의 성장에 힘이 되기 위해
멀리 이란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이 있다.
바로 웰크론강원 기술부의
지바 오미디(Ziba Omid) 대리다.

웰크론강원 기술부 지바 오미디(Ziba Omid) 대리

타국에서 꿈을 위해 도전하는 웰크론인



도전하는 웰크론인을 위한 오미디 대리의 3문 3답

01 한국행이 큰 모험이자 도전이었을 텐데,
그 때의 마음가짐은 어땠나요?

제 삶의 대부분은 모험이었고, 저는 지금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되는 도전 그 자체를 받아들였죠. 가시어 오는 어려움은 훗날 을 성 공에 덧붙여지는 것들일 뿐이란 믿음을 가지고요.

02 도전에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 인간이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새로 닥쳐도 적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도전하기 전에 찾아오는 망설임과 막막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03 도전정신과 관련하여 웰크론인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세요.

진정한 성취란 경험으로 인한 지식과 힘으로부터 얻어집니다. 저는 제 인생의 여정에서 이것을 체험했고, 웰크론그룹이 겪을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란에서 한국으로, 목표를 향한 쉽지 않은 도전

산업용 보일러 장치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을 지원하는 웰크론강원 기술부에서 일하고 있는 오미디 대리. 그녀와 웰크론강원과의 인연은 벌써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란의 파랍(Farab)사에서 웰크론강원으로부터 수주 받은 ILAM 프로젝트를 위해 일했던 오미디 대리는 여러 번의 업무 미팅을 통해 한국에 오게 되기 전부터 웰크론강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2년 전 BMS(Burner Management Systems) 점검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비로소 한국에서 일할 것을 결심했다고 한다.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오미디 대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이자 도전이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한국행. 원래 다니고 있던 직장과의 이란에서의 삶, 가족, 친구들을 포기하고 언어장벽도 감수해야 하는 어렵고도 힘겨운 결정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겠다는 그녀의 꿈과 이란에서 만났던 한국인들에게서 받은 개인적인 인상, 그리고 웰크론강원의 믿음직한 이미지가 그녀를 한국으로 오게 만들었다.

역경을 발판 삼아 도전하고 성장하다

한국에 오고 나서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흘러갔던 것은 아니다. 그녀는 조금 내성적이고 쑥스러움을 많이 타 한국인들에 둘러싸여 자신만 다르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힘이 들었다고 한다. 또한 이란과 비교했을 때 더 긴 한국의 근무시간은 종종 그녀에게 너무 무겁게 다가왔으며, 이 와중에 생체전자공학 석사과정을 밟으면서 주어지는 과제가 겹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될 때도 많았다. 이미 영어와 독일어, 아랍어를 할 수 있는 그녀이지만 한국어는 무척이나 어려워져 언어적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날도 허다했다.

그러나 오미디 대리는 이러한 역경들이 '견딜만했다면' 더 이상의 도전도, 발전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 배우고 발전해나가는 모든 과정들은 오히려 더 강한 자신을 만드는 생산적인 나날들이었다고, 그래서 자신에게 이런 기회를 준 웰크론강원에 더없이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오미디 대리는 구성원들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보고 그 범위와 견적을 수정하는 일을 맡고 있으며, 이란에서 진행되는 South Pars 20-21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웰크론 그룹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그녀가 웰크론강원의 계속되는 발전을 기원하고 자신이 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는 아름답다. 웰크론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Welcron in>에서 준비한 코너, '웰크론인 무한도전! 그 첫 번째 도전자는 웰크론 해외영업팀의 하윤형 계장. 칼바람과 매서운 추위도 이랑곳 않고 겨울 하늘을 향해 당차게 몸을 날린 그녀의 패러글라이딩 도전기를 들어보자.

웰크론 해외영업팀 **하윤형** 계장의 패러글라이딩 도전기

겨울 하늘을 가르는 한 마리 새처럼-



당찬 그녀의 당찬 도전

웰크론 해외영업팀에서 스페인, 캐나다 및 호주 지역에 마이크로하이버 제품을 수출하는 업무를 맡으며 벌써 4년째 근무하고 있는 하윤형 계장.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을 조금 무서워하기도 하고 패러글라이딩 도전이 처음이라면서도, 체험을 준비하는 동안 별로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녀는 평소 아웃도어 활동을 즐긴다고, 밝고 적극적인 그녀의 성격처럼 스쿠버 다이빙, 스노우보드 등 활동적인 스포츠를 즐겨왔던 터라 이번 패러글라이딩 체험도 무척 기대가 된다며 눈을 빛냈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간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녀는 이런 게 진짜 도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전정신이란,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단 해보자는 마음 아닐까요?”

패러글라이딩 도전을 위해 찾은 곳은 유명산의 고도 860m 지점에 위치한 활공장. 올라가는 지형도 험한데다 지난 번 내린 첫 눈이 녹지 않고 얼어 있을 정도로 춥고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다가 바람에 몸을 맡겨 날아오르는 것이 무서울 법도 하건만, '무한긍정 마인드'로 무장한 하윤형 계장은 여유만만이다.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싫어요. 해보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다음부터 안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세차게 불어대던 바람도 잦아들고, 드디어 날아오를 시간. 첫 번째 시도는 캐노피와 연결된 줄과 영키며 주저앉아버리는 바람에 실패했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는 강사의 지시에 맞추어 달리다보니 어느덧 사뿐히 하늘로 날아올랐다. 체감온도 영하 7도의 날씨에 바람도 많이 불었지만 그녀는 마치 추위와 고소공포증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한잠을 새처럼 날았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달려야 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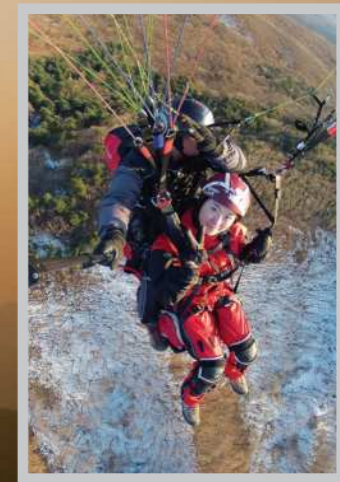
패러글라이딩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바람을 등지고 뛰어야 바람의 힘을 받으며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 모두 바람이 부는 방향을 마주 보고 뛰어야한다. 물론 바람에 맞서 달리는 것이 혹여나 힘 쓸릴까 무섭기도 하고 힘이 더 들기도 하겠지만, 그래야 날개에 바람이 차 날아오를 수 있고, 착륙할 때에도 속도를 점차적으로 늦추며 더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생활에서도 도전과 두려움 극복은 필요하다. 매일 부딪히는 업무 속에서도 항상 도전의 기회를 만나고, 마주 불어오는 바람이 주는 것 같은 두려움과 위기를 맞보게 되는 순간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 주저하지 않고 두려움을 정면으로 응시하여야 문제도 빨리 해결되고 업무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바람을 마주 보고 지정된 방향을 향해 달리다 보면 장애물 같게만 느껴졌던 바람이 어느새 몸을 가뿐히 들어 올려주는 패러글라이딩의 원리처럼 말이다. 두려움을 이겨내며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패러글라이딩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하윤형 계장이 웰크론인들의 새로운 도전과 두려움 극복을 응원하기 위해 파이팅을 외쳤다.



웰크론 해외영업팀 하 윤 형 계장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모든 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래에서 느끼는 속도감 보다 더 느리게 보였죠. 직장생활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연차가 늘어가면서 업무스킬도 생기고, 그만큼 업무 속도도 빨라지니 신입사원이 하는 것을 보면 느리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이번 경험은 이렇게 스스로가 어디까지 왔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웰크론한텍 건설구매팀 **오동훈** 과장 가족 **‘뽀통령’과 함께 하는 뽀로로파크 방문기**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 뽀로로.
오동훈 과장의 아들 승현이도 예외는 아니다.
어린 아들에게 가슴 벅찬(?)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오동훈 과장 가족이 뽀로로파크를 방문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즐기며
항상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주고자 노력하는
오동훈 과장 가족의 즐거운 하루를 들여다보자.

동심의 천국, 뽀로로파크를 방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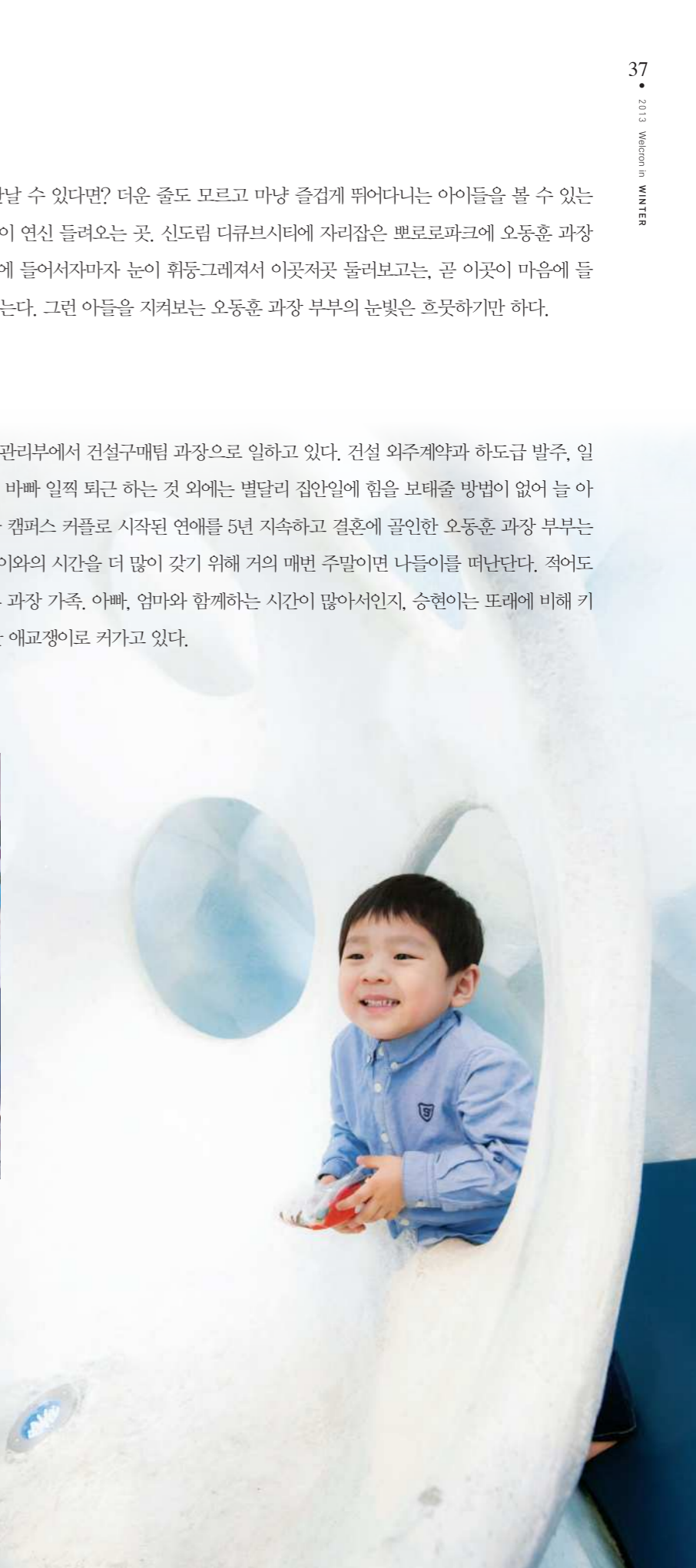
전 세계 동심을 사로잡은 ‘뽀통령’을 실제로 만날 수 있다면? 더운 줄도 모르고 마냥 즐겁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곳, 뽀로로와 더 놀고 싶은 아이들의 칭얼거림이 연신 들려오는 곳. 신도림 디큐브시티에 자리잡은 뽀로로파크에 오동훈 과장 가족이 떴다. 세 살배기 승현이는 뽀로로파크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곳저곳 둘러보고는, 곧 이곳이 마음에 들었는지 귀여운 보조개를 만들어내며 배시시 웃는다.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오동훈 과장 부부의 눈빛은 흐뭇하기만 하다.

듬직한 아빠의 끔찍한 가족 사랑

오동훈 과장은 웰크론한텍 경영기획본부 구매관리부에서 건설구매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건설 외주계약과 하도급 발주, 일반 구매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그는 회사일이 바빠 일찍 퇴근 하는 것 외에는 별달리 집안일에 힘을 보태줄 방법이 없어 늘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복학생과 신입생으로 만나 캠퍼스 커플로 시작된 연애를 5년 지속하고 결혼에 골인한 오동훈 과장 부부는 부부간의 정을 돈독히 함과 동시에 아들 승현이와의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해 거의 매번 주말이면 나들이를 떠난단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여행을 다닌다는 오동훈 과장 가족. 아빠,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인지, 승현이는 또래에 비해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는 씩씩한 애교쟁이로 커가고 있다.



소극장에서 뽀로로 친구들이 등장하는 싱어롱쇼를 보고난 후, 승현이를 위해 특별히 다시 등장한 뽀로로에게 승현이가 수줍게 뽀뽀를 했다.



뽀롱뽀롱뽀로로, 노는게 제일 좋아!

승현이가 '뽀롱뽀롱 뽀로로'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뽀로로를 친형처럼 따라다니는 작은 아기공룡 크롱이. 뽀로로파크 구석구석을 종종걸음으로 뛰어다니며 곳곳에 숨은 크롱이 조형물을 찾기도 하고, 뽀로로의 집에서 뽀로로의 침대에 누워보기도 하느라 바쁘다. 그렇다고 온통 뽀로로에만 관심이 팔려있는 것은 아니다. 함께 공놀이도 하고 블록쌓기도 하며 어느새 아빠, 엄마와 노는 재미에 푹 빠진 승현이. 취향이 확고해서 파란색을 유독 좋아하는 승현이를 위해 파란색 공과 파란색 블록을 모아주는 오동훈 과장과 아내 숙희 씨의 얼굴에서는 이미 회사 업무와 집안일로 인한 피곤함이 승현이의 애교에 살살 녹아 없어진지 오래다. 재미있게 놀아주면서도 혹여나 다칠 새라 아이의 안전을 챙기는 아빠, 엄마의 세심함에 승현이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것도 모르고 실컷 뛰놀았다. 이러니, 승현이가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아빠, 엄마와 함께 놀러 다니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다고 말할 수밖에.



설렘과 행복, 이 순간이여 영원하라!

비록 직장생활 때문에 평소 놀아줄 시간이 부족하여 맘에 걸리지만 늘 곁에서 응원해주는 아내와 아들이 있어 행복하다는 오동훈 과장. 그는 가족이 행복해지고 사랑이 쌓이는 모든 순간순간이 그저 소중한기만 하단다. 주말마다 늘 함께하면서도 가족과 어딘가로 떠날 때마다 설렌다는 오동훈 과장은 지난 10월 강화도에서 튜브썰매를 타며 한없이 좋아했던 승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썰매장으로 떠나는 또다른 설렘의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아들에게 언제나 따뜻한 아버지자 늘 믿고 지켜줄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다는 오동훈 과장. 아내에게는 마지막 눈감는 순간까지 언제나 처음처럼 변치 않고 사랑해주는 배우자가 되고 싶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지금처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이 순간이 언제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오동훈 과장의 바람처럼, 화목한 이 가족의 소중한 설렘과 행복이 영원하기를 기원한다.

Tip. 뽀로로파크 디큐브시티점
뽀로로의 집, 루피의 집, 꼬마기차, 빙산미로 등 친근한 뽀로로 캐릭터로 꾸며진 에듀테인먼트 (Edutainment) 공간.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신나게 놀고, 체험하고, 공부하는 놀이문화의 장으로 신도림 디큐브시티 외에도 잠실, 동탄, 일산 컨텍스, 광주, 파주, 청주에 지점이 있다.
* 입장료(2시간 기준) : 어른 6,000원 / 어린이 16,000원
* 초과요금(10분당) : 어른 500원 / 어린이 1,000원
* 이용시간 : 월~일 10:30~20:20 / 토요일 10:30~21:30
* 프로그램 : 루피의 집 체험학습, 뽀롱뽀롱 꼬마기차, 마술쇼, 뽀로로체조 등

전문가가 자신 있게 추천하니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넓고 쾌적한 매장 전체에 퍼진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전해 온다. 손님들에게 살갑게 말을 걸고 다정하게 웃어주며 커피 한 잔, 꿀 한 개라도 대접하려 하는 김진화 점주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친절한 이웃과도 같은 느낌이었다. 친근함과 솔직함을 무기로 손님을 끌어 모으는 세사리빙 인천주안점의 김진화 점주와 그녀가 추천하는 BEST 제품을 소개한다.

01 세사리빙 인천주안점



김진화 점주

항상 열려있는 이웃 같은 매장

김진화 점주가 운영하는 세사리빙 인천주안점은 매장이 크다 보니 40~60대 주부부터 신혼부부 까지 다양한 고객층들이 방문한다. 그만큼 단골손님도 많고, 판매되는 침구의 가짓수와 양도 많아 때로는 없어서 못 파는 물건이 생기기도 할 지경. 많은 손님을 상대하고 많은 물건을 팔다보면 고객 응대나 제품 관리에 있어서 소홀한 면이 생길 법도 하지만, 김진화 점주는 친근함과 솔직함을 생명같이 생각한다. '손님 응대는 친근하게, 상품 설명은 솔직하게, 제품 추천은 정직하게 좋은 물건으로'를 모토로 항상 열려있는 이웃 같은 매장을 추구하는 그녀의 노력이 마음에 와 닿아서일까, 인천주안점에는 이월 상품도, 재고 상품도 없다.

자칭 타칭 침구 전문가의 추천 제품 - 아비농

세사리빙 인천주안점을 운영한 지도 꽤 된데다 이전에 타사 침구 브랜드 매장을 10여 년간 운영한 경험도 있는 김진화 점주는 자칭 타칭 침구 전문가. 그런 그녀가 추천하는 제품은 '아비농'이다. S730 마이크로화이버 소재가 사용된 아비농은 겉보기에는 얇아보여도 따뜻하고 포근하며, 먼지가 생기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적당한 무게감이 덮고 잘 때에 편안함을 주며 공기와 수분은 통과시키고 진드기와 유해물질은 차단시켜 알레르기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지만,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따뜻한 컬러감의 침구를 추천하고 싶단다. 아직 세사리빙을 잘 몰라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해도 세사리빙 침구의 좋은 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김진화 점주. 점주 본인이 써도 좋은 제품이니, 일단 먼저 써보시라고 권한단다. 침구 전문가가 자신 있게 추천하니 믿을 수 있는 세사리빙 인천주안점의 귀추가 주목된다.

시각과 촉각으로 먼저 느껴보세요

세사리빙 인천주안점에 침구 전문가가 있다면, 세사 의정부점은 판매 베테랑이 있다. 대형마트에서 약 10년간 언더웨어 제품을 판매하며 고객과 소통해 왔던 경험이 있는 신현자 매니저가 바로 그 주인공. 전문적인 판매 전략이나 프로모션으로 판매에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숙련된 노하우가 의정부점의 매출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고, 매장 초입에 디스플레이 된 레드와 화이트 컬러의 '리한나' 역시, 신현자 매니저의 노하우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연말에는 레드 앤 화이트가 대세 - 리한나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붉은 계통이나 흰색 제품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난다. 이에 착안하여, 신현자 매니저는 '리한나'를 현재 주력상품으로 밀고 있다. '리한나'는 2013년 하반기(F/W) 신상으로, 레드 앤 화이트 컬러가 따뜻한 느낌을 주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 웰크론의 극세사 가공 기술이 압축된 고기능성 알레르기 방지 원단 '웰로쉬 플러스'가 적용되어 터치감이 부드럽고 극세사 특유의 사각거리는 소리가 축소된 제품이다. 아토피 질환의 주원인인 집 먼지 진드기를 차단시키고 먼지 발생이 적어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먼지에 민감한 사람에게 좋으니, 디자인적 면에서나 기능적 면에서나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팔방미인 상품이다.

디스플레이 하나에도 세심함을 더하다

주력상품인 '리한나'는 현재 의정부점 매장 초입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다. 레드 앤 화이트 컬러로 연말 및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내면서 세일기간임을 이용하여 판매 촉진도 동시에 꾀하는 데에 안성맞춤인 것. 이렇듯 신현자 매니저는 디스플레이 하나에도 세심함을 더한다. 그녀의 세심한 디스플레이는 단순한 '손님'을 '고객'으로 바꾸는 데에도 이바지한다. 아직까지 세사 브랜드나 알레르기 방지 침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손님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후 그 수려함과 감촉에 반해 세사 제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소재에 대해 묻는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과 상품 특성을 캐치해내 판매로 이어나가는 방식은 오랜 고객 응대에서 나온 그녀만의 노하우다.

02 세사 의정부점



신현자 매니저

웃음소리와 즐거운 수다가 끊이지 않는 곳

웰크론그룹 새 여자기숙사 탐방

'축하합니다'는 웰크론그룹과 웰크론인의 각종 경사를 소개하고 다 함께 축하해주는 취지로 마련된 새 코너. 이번 <Welcron in> 겨울호에서는 독산에 위치한 새 여자기숙사를 소개한다. 연신 웃음소리가 새어 나오고 즐거운 수다가 끊이지 않는, 다섯 웰크론인의 러브하우스를 살짝 들여다보자.

* 회사 근처에 마련된 새 보금자리

독산3동에 위치한 새 여자기숙사에 현재 살고 있는 인원은 5명. 방 세 개에 욕실 두 개, 세탁실과 베란다까지 갖춘 기숙사는 여자 5명이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지난 10월 입주한 이들 중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기숙사에서 5년 정도 지내왔던 기숙사 생활의 '레전드'가 있는가 하면 혼자 자취를 하던 사람도, 멀리 파주에서부터 통근을 하던 사람도 있는데, 새 보금자리에 대해 입을 모아 하는 칭찬은 바로 '회사가 가깝다'는 것이다. 기숙사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산책삼아 걸어갈 수 있을 정도라고. 여자들만 사는 곳이다 보니 밤에는 무섭지 않는다는



질문에도 든든한 방법창과 잠금장치 덕분에 안심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비록 최첨단 시설에 최고급 인테리어를 갖춘 집은 아니지만, 회사의 배려로 합리적인 가격에 근무지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

* 함께 살며 하나 된 웰크론인으로

기숙사에 거주하는 다섯 명은 원래 웰크론과 웰크론한택에서 근무하며 업무적으로 잠깐씩 만나거나 회사 내에서 오며 가며 안면만 있었던 사이였지만, 기숙사에 입주하면서부터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친자매 못지않은 우애를 자랑하고 있다. 물론 처음에는 낯을 가리기도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서로 반겨주고 귀가가 늦을 때면 기다려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 서로의 마음을 열게 했다고. 회사일로 바빠 다섯 명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모여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미뤄두었던 수다를 한바탕 펼친다. 회사 이야기부터 가족 이야기, 남자친구 이야기 등 끊임없는 수다가 이어지다 보니, 새 여자기숙사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 나오지 않는 날이 없다.

각자 다른 가족사에 근무하면서도 돈독한 우애를 자랑하며 '하나 된 웰크론인'의 축소판을 보여주고 있는 여자기숙사의 '오자매'들. 새 여자기숙사는 이렇듯 '오자매'의 보금자리이자, 웰크론인의 안정된 생활을 배려하고 웰크론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웰크론그룹의 노력이 엿보이는 곳이다.

Interview



웰크론 대리점상품기획팀 양지은 사원

기숙사 생활이 저에게 안착감을 줬어요. 저 스스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했고, 생각도 넓어졌다는 것이 느껴져요. 단체생활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변하게 된 성격이 회사생활에도 영향을 끼쳤고요. 다들 아주 재미있고 밝은 성격이라, 저희는 마치 친자매같이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회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웰크론그룹 파이팅! 그리고 기숙사 생활 같이 하는 우리 오자매들 파이팅!



글 정근애

여자에게 참~ 좋은 좌훈의 효능

추운 겨울철, 몸을 따뜻하게 하라

여로부터 여성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여성들의 하체가 차가워지면 건강이 나빠지거나 자궁질환에 시달릴 수 있고 심하면 불임까지 될 수 있기 때문. 그렇기에 추운 겨울철은 여성 건강에 최악의 시즌이라 할 수 있다. 몸이 냉해지는 계절 겨울,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여성들의 건강을 지키는 좌훈에 대해서 알아보자.

좌훈 요법이란?

한의학에서 훈증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재를 물에 끓여 그 수증기를 쬐는 방법이다. 좌훈은 여성의 생식기 부근을 따뜻하게 데워줄 뿐만 아니라 살균, 소염, 혈액순환 촉진 작용이 뛰어나 부인과 치료에 많이 이용된다. 동의보감에서는 하복부 질병은 모두 몸의 냉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좌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좌훈의 효능

살균 작용

좌훈은 생식기와 하복부에 직접 약재의 열기와 연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강력한 살균, 소독 작용을 한다. 이는 냉증, 냉대하, 질염, 자궁염, 물혹 등 각종 여성 질환을 개선시키는 데에 효과가 좋다.



진통 및 소염 작용

좌훈은 하복부 혈액순환 및 림프액 순환을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어 생리통, 하복부통증, 요통, 신경통, 산후통 등 각종 통증을 완화시킨다. 또한 자궁 내에 노폐물이 쌓여 생기는 독소를 배출시킴으로써 여성 질환의 치료와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준다.



피부 미용

좌훈은 내분비 호르몬을 주관하는 생식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원활하게 하고, 좌훈 중 흘러나는 땀은 피부 속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며, 기미, 주근깨, 여드름은 물론 알레르기성 피부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약재 성분에 포함된 비타민과 칼슘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기도 한다.



다이어트 효과

좌훈은 체내순환을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몸의 온도를 높여준다. 이는 다시 몸속의 지방질을 분해하고 장기에 남아있는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아랫배가 들어가고 몸의 붓기가 가라앉는 효과를 가져온다.



주의할 점

너무 오랜 시간을 하거나 너무 뜨거운 온도로 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한 번에 30분 내외로 무리하지 않고 진행해야 한다. 또한 좌훈 중 몸 상태에 따라 다리가 저리거나 가려움 증상이 나타나는 등의 명현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좌훈을 중단하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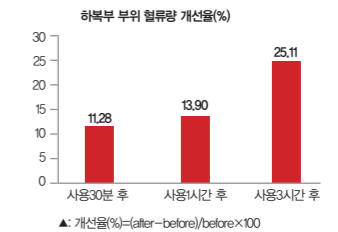
Tip.

바쁜 현대여성을 위해 준비했다! 간편한 Y라인 관리 방법

예지미인 '좌훈속찜질패드 오가닉코튼'으로 항상 따뜻하게



하체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여성에게 참~ 좋은 성분으로 무장하여 여성 건강을 보호해주는 휴대용 찜질패드. '좌훈속찜질패드 오가닉코튼' 특허 받은 7가지 한방 추출물과 원적외선 방사 국내산 옥 성분, 강화사지발췌, 백수오, 천궁, 백지 등 다양한 한약재 성분이 간단한 사용법에도 불구하고 진짜 좌훈을 한 듯한 효과를 가져 온다.



100% 유기농 순면카버
항균효과와 7가지 한방추출 조성물 함유
(특허 제10-1104898호)



- 1 원적외선 방사 국내산 옥 분말 함유
- 2 100% 국내산 한약재 분말 사용 강화사지발췌, 백수오, 천궁, 백지
- 3 후끈후끈 슬림 발열팩 (자사 기존제품 대비 두께 감소)



예지미인 '깨끗한 예지미인 여성청결제'로 항상 깨끗하게

개인 위생과 불쾌한 냄새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성청결제. 예지미인의 여성청결제는 엄선된 11가지 한약성분, 식물성 유산균 발효성분이 함유된 약산성 제품으로 부드럽고 풍부한 거품으로 여성의 민감한 부위를 자극 없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숲이온'과 '웰이온'은 침구를 통해 음이온을 전달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음이온 침구. 특허 받은 음이온 원단을 사용해 도시의 일반 가정보다 10~26.7배 많은 음이온을 담아냈다. 이는 산과 들이 만연한 교외에서 방출되는 음이온 수치와 비슷한 결과. 자연 속에서 많이 방출되는 음이온은 세포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여 혈액 순환 및 인체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음이온 침구는 덮고 자는 것만으로도 힐링 효과를 주는 그야말로 '착한 침구', '진정한 웰빙 침구'라고 할 수 있다.

음이온 침구 세사리빙 '숲이온', 세사 '웰이온' 집에서 자연을 느끼자!

공기 중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음이온. 음이온은 혈액을 정화시켜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때문에 여러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숲이나 폭포와 같은 자연 환경에 풍부한 음이온을 담은 음이온 침구는, 덮고 자는 것만으로도 일상에 지친 당신을 치유해줄 것이다.

음이온 침구의 효능

혈액의 정화작용

피가 맑아지고 혈류량이 증대되어 혈중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해준다.

세포의 부활작용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칼슘이 증가하며 심근의 흥분을 높여 심장을 더욱 건강하게 한다.

저항력 증진효과

각종 질병에 대한 항체를 증가시켜 저항력을 증가시킨다.

자율신경계 조정작용

자율신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분비계 활동을 개선하여 조절 기능이 좋아진다.

통증 완화 작용

엔돌핀과 엔카리핀을 분비시켜 피로회복, 체력증강 뿐만 아니라 몸 속 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피를 잘 돌게 하여 각종 통증을 완화시켜준다.



세사리빙 고객 체험수기 당선작

세사리빙을 우리 딸 지킴이로 임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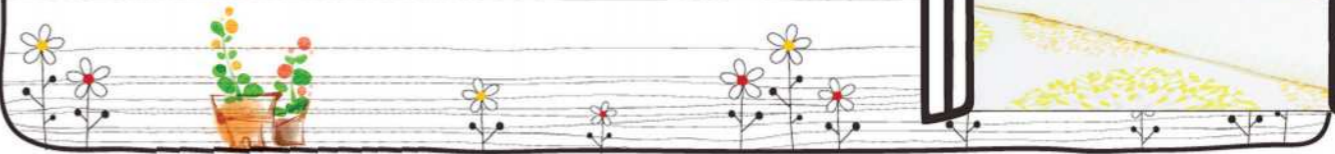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아토피와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진 두 남매의 엄마입니다. 특히나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는 낮과 밤의 온도 차로 인해 이 증상이 더욱 심해지곤 했습니다. 밤이면 온몸을 벽벽 긁으며 잠을 설치고, 자고 일어나면 온몸 에 상처자국까지 생겨나 있어 저를 속상하게 만들던 딸아이는 검사 결과 집 먼지 진드기에 심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절망 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더욱 위생에 신경을 썼고, 가능성 알레르기 방지 침구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품질에 비해 비싼 가격과 가격에 비해 효과가 없다는 말을 듣고 망설였지요. 그러던 중 세사리빙 초극세사 알레르기 방지 침구를 알게 되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세사리빙 알레르기 방지 침구는 그 깐깐하다는 영국 알레르기 협회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믿음이 생겼습니다. 직접 침구 청소기로 일반 차렵이불과 세사리빙 알레르기 방지 이불을 청소해보니, 기존에 가족들이 사용하던 이불은 청소기로 먼지를 흡입해보면 새까만 먼지들이 영겨 나왔는데 정말 세사리빙 이불에서는 먼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실크처럼 가볍고 부드러운데 따뜻하기까지 했어요. 보통 기능성 침구라 하면 디자인은 촌스럽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세사리빙 침구는 디자인이 트렌디하면서도 심플합니다.

세사리빙 침구를 사용하다 보니 밤에 그렇게 온몸을 벽벽 긁으며 집 먼지 진드기와 사투를 벌이던 우리 딸이 달라졌습니다. 몸을 긁는 횟수와 강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아토피가 호전된 것입니다. 세사리빙 침구가 이불속에 숨어있는 진드기까지 말끔히 케어해 주니 아들도 더 이상 재채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사리빙 알레르기 방지 침구를 사용한 지 한 달 만에 찾아간 정기검진 날. 그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던 우리 딸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매일 밤마다 항히스타민 약을 먹으며 "엄마, 맛이 써서 먹기 싫어. 안 먹으면 안돼?" 하며 보채던 우리 딸에게 담당교수님이 "이제 많이 좋아져서 약은 하나를 빼도 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딸은 세사리빙 침구를 사용한 뒤 먹는 약의 양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 먼지 진드기에 99.9%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우리 딸, 비염으로 기침을 해대던 우리 아들... 그래서 제게는 더더욱 집 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방지 침구인 세사리빙 침구가 필요했습니다. 이젠 모든 침구를 세사리빙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우리 공주님과 저에게 웃음을 찾아준 세사리빙 침구를, 우리 딸 지킴이로 임명합니다!



웰크론그룹, 한양여대와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실시



웰크론그룹은 지난 11월 29일 한양여자대학교 해봉우리 봉사동아리와 함께 인천시 화수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20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웰크론그룹 직원 18명과 한양여대 봉사동아리 20명이 참여했으며, 인천시 연탄은행의 도움으로 쪽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가정에 연탄 200장씩을 직접 전달했다. 연탄봉사는 연탄을 지게에 쌓아주는 팀, 지게로 연탄을 나르는 팀, 연탄을 가정집에 쌓아두는 팀 세 개로 구성해 진행했으며, 봉사단원들은 마중 나와 기다리는 독거노인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신속하고 조심스럽게 각 가정의 빈 연탄 창고를 가득 채워줬다.

웰크론그룹은 매년 사내 자원 봉사단을 구성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올해 3월에는 시리아 난민캠프와 저개발국 여성들에게 총 2억 원 상당의 여성 위생용품을 지원했으며, 최근 필리핀 태풍 수해지역에도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관계자는 “추운 겨울에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회장, 신세계백화점 책임경영대상 수상

이영규 회장이 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책임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이영규 회장은 지난 10월 24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신세계백화점 개점 83주년 기념식'에서 웰크론그룹의 책임경영활동과 신세계백화점 동반성장 정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책임경영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그는 수상 소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로 상생의 시대를 이어갈 것을 강조하고, 신세계 100주년 기념행사도 웰크론과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200여 명의 관계자를 대표해 축하 삼행시를 낭독해 행사장 분위기를 돋우기도 했다. 한편 이영규 회장은 책임경영대상 수상을 기념해 그룹사 임직원 모두에게 떡을 돌리며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세사리빙 중국 청양점 오픈



친환경 침실 전문점 세사리빙(SESA Living)이 런칭 3년 만에 해외시장에 진출했다. 세사리빙은 중국 칭다오 청양지구에 해외매장 1호 '청양점'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에 다시 베이비붐이 일면서 유아용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칭다오에는 한족 부유층의 인구가 많아 유아 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칭다오는 바닷가에 인접해 있으면서 대기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흡수력이 높고 '먼지 없는' 이불인 세사리빙의 컨셉과 맞아떨어졌다. 칭다오점은 쇼핑센터 1층 입구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접근성을 자랑하며, 쇼핑센터 내에 4개의 침구 매장이 입점해 있고 주변에 웨딩거리가 형성돼 있어 침구 고객의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세

사리빙은 중국 칭다오 2호점 계약도 완료하고 인테리어 공사 및 상품 공급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세사리빙은 중국 시장을 시작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웰크론강원, 무역의 날 '5천만 불 수출탑' 수상



웰크론강원이 한국무역협회(KITA)가 주관하는 '제5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5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웰크론강원 이효국 부회장은 산업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웰크론강원은 1979년 설립된 에너지·석유화학 플랜트 전문기업으로 2001년 5백만 불 수출을 달성한 이후, 2007년 1천만 불, 2011년 2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다. 웰크론강원은 화공설비, 발전에너지설비, 환경에너지설비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오랜 업력을 자랑하는 발전에너지설비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웰크론강원의 황회수설비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웰크

론강원은 그동안 주요 거래사인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등을 포함해 국내 250개 업체와 계약을 성사시키며 지난해 매출 1065억원을 기록,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대형 발전용 보일러 시장 진출을 위해 유럽 기업과 기술제휴를 체결하고, 중동의 공식 공급업체(벤더) 등록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에서 공격적인 영업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웰크론한텍, '대한민국 수도기술대전' 금상 수상

웰크론한텍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이 공동 주최한 '2013 대한민국 수도기술대전'에서 금상을 받았다. 웰크론한텍은 수도기술대전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수도 신기술 경진대회'에서 포스코건설과 함께 개발한 '친환경·저에너지 STAR 해외담수화 기술'로 수상했다. 이 기술은 기존 방식보다 효율을 높이고 전력소모를 줄인 역삼투압 방식 담수화 기술로 필터링 공정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99% 이상 제거할 수 있으며, 기존 공정보다 담수화수율을 10% 이상 높이고 연간 설비 운영비를 60% 이상 줄일 수 있다. 웰크론한텍은 포스코건설과 지난해 제주도 우도에 이 기술을 적용한 해수담수화 설비를 제작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웰크론한텍 관계자는 "80개 회사가 응모한 이번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받음으로써 첨단 역삼투압 방식의 해수담수화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며 "웰크론한텍은 앞으로 국내외 해수담수설비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예지미인 좌훈쑥찜질패드 오가닉코튼, GS홈쇼핑 첫방송



한방위생용품 예지미인의 '좌훈쑥찜질패드 오가닉코튼'이 GS홈쇼핑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 12월 25일 수요일, GS홈쇼핑에서 오후 1시 40분부터 2시 30분까지 방송된 '좌훈쑥찜질패드 오가닉코튼'은 피부에 닿는 부분에 100% 유기농 순면커버를 적용해 민감한 피부의 여성도 간편하게 좌훈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리미엄 제품이다. 오가닉코튼훈합기준인증(OE)을 획득하고 100% 국내산 한약재를 사용하는 등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자랑한다. GS홈쇼핑 첫 방송에서는 론칭을 기념해 5P좌훈패드 16박스, 그린티슈 물티슈 8팩 구성이 69,800원에 판매됐다.

예지미인의 특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05년 최초 출시된 예지미인 좌훈쑥찜질패드는 신개념 휴대용 좌훈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좌훈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GS홈쇼핑을 통해 기존 제품보다 업그레이드된 유기농 순면커버를 선보이게 됐다.

“우리는 정정당당 웰크론인입니다”



어느덧 웰크론이 창립 2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웰크론을 성장시키고, 명성을 유지시킨 것은
바로 클린경영, 정정당당한 거래문화입니다.

웰크론은 클린경영을 지향합니다.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이 고객이라는 생각으로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부조리와 부패없이
오로지 정직한 제품의 품질로 승부하겠습니다.

협력사와 정정당당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는
클린경영 웰크론-

우리는 정정당당 웰크론인입니다.



Q 사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지인 집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웰크론인>을 보게 된 후에 방문할 때마다 꼭 챙겨서 보고 있습니다. 사보라고 하면 늘 딱딱한 분위기만 떠올렸는데 <웰크론인>은 직원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많이 담겨있어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인이 다니는 회사가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처음 알게 되었네요. 저같이 아직 웰크론그룹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이 발행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울 송파구 마천동 박세은 님

* 늘 즐거운 마음으로 <웰크론인>을 펼쳐보고 있습니다. 힘든 업무를 하다 보면 인상이 찌푸려질 만도 한데, 직원들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 보기가 좋습니다. 늘 볼 때마다 느끼지만 웰크론그룹에는 단체 활동도 많고, 이를 통해 직원들 간의 단합이 잘되고 있나봅니다. 규모는 작지만 저희 회사에도 적용해보면 좋을 듯한 프로그램도 배우고 갑니다.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최동욱 님

* <웰크론인>을 더 자주 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간 2회만 발행되다 보니 새로운 사보를 받아볼 때마다 이만 큼씩 달라져 있어 그 과정이 궁금할 때가 많아요. 사업영역도 부족 늘고 새로운 사업부문에서 성과도 생기면서 발전해 가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호에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따뜻한 미소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여민혁 님

* 세사리빙 매장을 통해 웰크론을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규모가 큰 회사인지 몰랐습니다. 단순히 이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폐수처리설비에, 발전소 보일러에 사업분야가 상당히 넓어 놀랐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지 궁금한 마음에 앞으로도 <웰크론인>을 통해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웰크론 가족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 서울 동작구 사당동 홍민아 님



Quiz 정답 및 독자 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
총 10분을 추첨하여 8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드립니다.



웰크론그룹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써 베트남에
신설한 해외법인명은 '웰크론 □□□□□'.

편집 후기

숨 가뻔던 1년을 마무리 하며 <웰크론인> 5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겨울호를 발행하면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더 나아진 사보를 발행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품었던 기억이 떠오르지만 정작 실행에는 옮기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아쉬움이란 감정이 정성이 탈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 믿으며

내년 봄에 발행될 <웰크론인> 6호를 위한 기약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웰크론인>을 사랑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웰크론그룹 홍보IR팀(pr@welcron.com)

먼지없는 깨끗한 이불,
아토피 걱정없는 건강한 이불

알러지방지 기능성 침구

세사리빙



대리점 개설문의

02)2107-6776/6773

www.sesaliving.com

